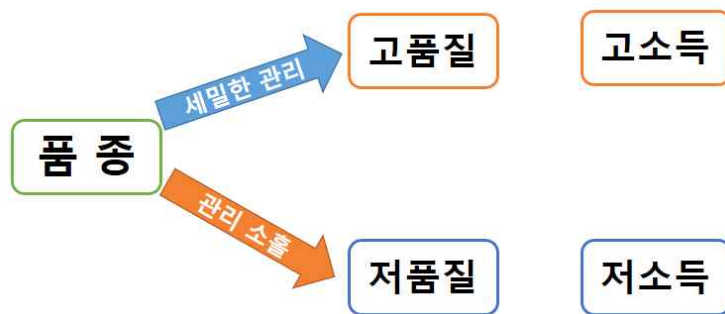


감귤 품종갱신은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.

□ 계획적인 감귤 품종갱신이 필요합니다.

-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현재 재배하는 품종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품종갱신을 생각합니다. 새로운 감귤 품종이 소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
- 급하게 결정된 품종갱신은 농업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.
 - 첫째, 품종과 묘목 선택에 제한이 많고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. 보통 갱신 수개월 전에 묘목 예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원하는 품종을 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묘목 가격도 비싸게 됩니다.
 - 둘째, 묘목의 질이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. 좋은 묘목은 예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묘질이 나쁜 것만 남아있게 됩니다. 이러한 경우 정식 후에도 생육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.
 - 셋째, 갱신 비용이 많이 듭니다.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- ※ 품종갱신에 따른 미수익기간(4~5년)도 있어 농가 부담은 더욱 크게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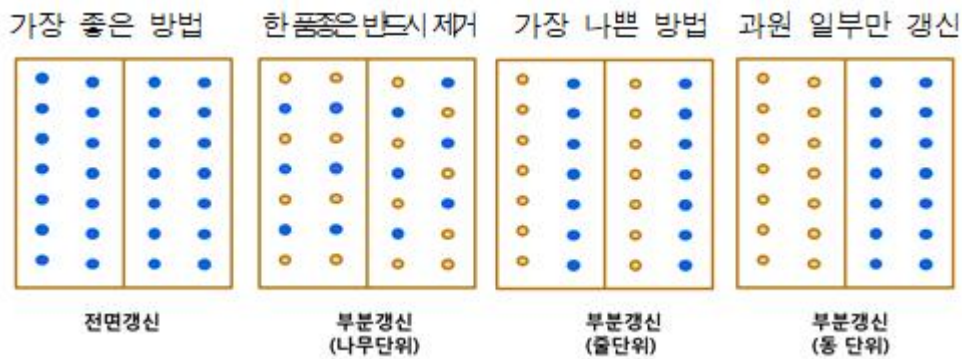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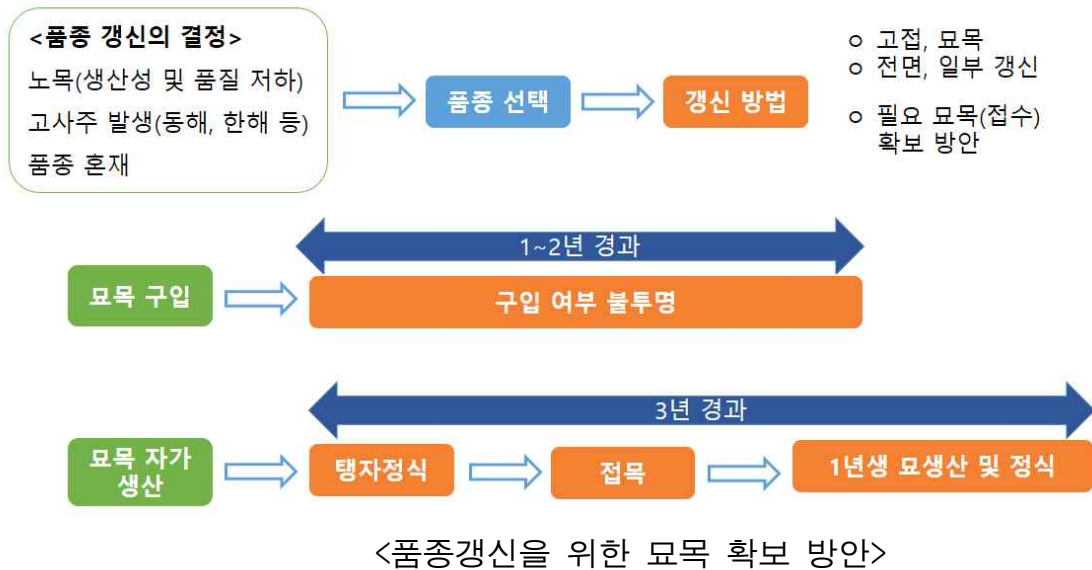


<품종과 소득의 관계>

□ 감귤 품종갱신을 계획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.

- 첫째, 품종갱신이 필요한지 냉철히 판단해야 합니다.
 - 한해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, 25년 이상 오래 재배 했거나, 수량이나 품질이 점차 떨어지는 경우에 갱신을 결정해야 합니다.
 - 왜, 갱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.

- 둘째, 자신에게 맞는 품종을 선택합니다. 과원 입지조건, 농업인의 건강 상태, 자신의 관리방법 등에 맞는 품종을 선택합니다.
- 셋째, 품종갱신 계획을 면밀히 수립합니다. 갱신 방법, 묘목 확보 방법, 지원사업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.



<품종 갱신에 있어서 정식 방법>

□ 품종갱신 후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.

- 품종갱신 후에도 관리가 안 되면 갱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☞ 문의: amul@amul.ac.kr 감굴아열대연구과 감굴육종연구 팀장 강상훈(760-7261)